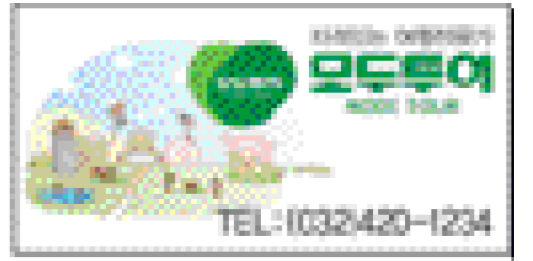




# 교육연합신문



2009년 6월 1일(월) 제2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 나에게 맞는 과목 찾아서...

### 교과부, 교과교실제 본격 도입 적합한 교실환경 마련 등 필요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찾아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5월 21일, 교과교실제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약 45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해 시범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현재 중·고교에서 교사가 이동하는 수업 방식을 전환해,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듣는 교과운영 형태다.

현 학급 중심의 수업형태에서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시켜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 도입('00~'04)부터 교과교실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약 33개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교실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추어서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제고되며, 교사들도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함으로써 수업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 교원, 교육전문직,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과교실제추진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권역별로 교장·교원을 대상으로 6월 초까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해당 학교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과부가 7월초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교는 시설, 교육과정, 인력 등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교실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학교 증·개축 및 기자재비 지원받고, 교장과 교원들은 수업방식 개선, 시간표 편성 등에 관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연수를 받는다.

또한 이들 학교는 교과교실 운영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필요한 강사 및 행정보조인력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 도입이 시행 초기 단계인 점과 향후 교과교실제 학교의 점진적 확산을 위하여 교과교실제 부분 도입형인 일부과목 중점형과 수준별 수업확대형의 유형 2가지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수학 과목에 잠재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수학(영어)과목 중점 이동수업 확대유형은 350~370개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시한 2가지 유형에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들은 학교

장의 신청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를 거쳐 6월말까지 시·도교육청이 선정토록 해 교육청별 교육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학교들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 인력, 연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교육과정

운용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교과교실 도입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총 한 관계자는 "이러한 교과교실제가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에 적합한 교실환경 마련, 교사 증원 등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썩떡 썩떡!

상인전중학교(교장 구건서)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사계기교육을 의도적·계획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시사계기 교육 [마중물 프로젝트]를 연중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5월 28일 단오날을 맞아하여 프린트물로 단오의 유래와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점심시간에는 전교생 1150명이 썩떡을 먹는 행사를 가졌다.

### Edu人 FOCUS

#### 조선대학교 김춘환 교수

이번 호에는 한국환경법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춘환교수(조선대학교)를 만나 보았다.

김춘환 교수는 1956년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를 졸업한 후 조선대학교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조선대학교 교수에 재직하고 있다. 재직 중에 미국워싱턴대학교 로스쿨과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로스쿨에 방문교수로서 두 차례의 유학을 다녀온 후 연구생활에 탄력을 받게 된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학업을 마친 토종 지방출신 학자이지만 그의 활동무대는 전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학교자율화 '호응 높아'

### 교장·교사·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교사초빙권' 확대...평교사들 반발 심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교장 및 교감의 88.9%, 일반 교사의 67.2%, 학부모의 6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여론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하여 5월 13일~14일에 걸쳐 전국의 교장 및 교감 108명, 일반교사 421명과 전국 초·중·고 학부모 502명 등 총 1,031명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학부모 95% 신뢰수준에서 ±4.37%p, 교원 95% 신뢰수준에서 ±4.26%p

이다.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학부모 62.5%가 찬성하였고, 교장 및 교감의 88.9%, 일반 교사의 67.2%가 찬성하여 전체적으로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국민공통 기본교과(초1~고1)에 대해 교과별로 20%까지 학교 자율로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원이 모두 찬성의견이 높아서, 학부모의 64.5%, 교장 및 교감의 76.9%, 일반교사의 66.7%가 찬성하였다.

한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는 방안

대해서는 학부모의 48.2%, 교장 및 교감의 70.4%가 찬성한 데 반해, 일반교사는 36.6%만이 찬성하여, 학부모 및 교(감)장과 일반교사간에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재정 지원 대상학교인 마이스터고, 지속형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전체 초·중·고의 20%까지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5.1%, 교장 및 교감의 65.7%, 일반교사의 53.0%가 찬성하였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해 4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동 방안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호부터 본지는 매주 발행됩니다.

##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러 나가세요"



### Q. 싱크대어스만 뚜껑만 열어?

A. 싱크대 내부에 간편하게 부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배관 스프레이터에서 세척(반면커펄)으로 분쇄하여 물로 배출하는 친환경 제품이며 무료로 제공하고, 무료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Q. 정말 무료인가요?

A. 일정한 기간 무료사용을 해보시고 맘에 드시면 선 모인드 별거를 하시고 카드를 일일금액 사용하시면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